

[종합·국제]

최악 수해 한달, 지금 평양은...

대동강엔 시벨전 황톳물 南 복구지원에 “고맙다”

전남도민남북교류협 정영재씨 방문기

지난 5일 오후 5시,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가 북한 어린이 영양공급을 위해 짓는 생청국장공장 준공을 앞두고 시설 및 기술이전 마무리와 수해 복구 지원 협의회 평양공방에 도착했다.

당초 지난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방문하려 했으나 남북정상회담 준비와 북한의 극심한 수해 때문에 일정이 바뀌었다.

출발하기 전 머릿속에는 수해로 북한의 도시와 산천이 온통 물에 잠겼다는 뉴스화면으로 가득했다. 임시 복구됐지만 수마가 활귀고 간참상이 눈앞에 섰다.

평양공방에 도착하니 담당 참사(안내원)들이 반겨주었다. 수해관련 안부부터 물었다. 북한관계자들은 “수해 피해가 컸으나 지금은 남쪽의 도움으로 많이 복구되고 있다”면서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평양 시내로 들어가면서 참박으로 독이 터져 시벨전 황톳물에 잠긴 논밭, 도로 그리고 건물 등을 보면서 정말 큰 수해를 입었다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었다. 차창 밖의 북한주민들은 복구작업에 여념이 없었다.

평양도 마찬가지였다. 아예 통행이 금지된 곳들도 있었다. “생각보다 피해가 크다”고 했더니 “평양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시름섞인 답이 돌아온다. “평양 주변 평안남·북도, 황해도 등은 너무 피해가 커서 걱정이 된다”고 힘입어 말하는 안내원의 말에 가슴이 미어진다. 평양이 이정도인데 다른 곳은 오죽했을까...

다음날 아침 생청국장 공장으로 출발했다. 평양 외곽의 만경대구역에 위치한 현장에 다다르니 입구가 많이 훼손돼 있었다. 공장 지배인과 기술자 등이 나와서 반겨주었다. 비록 수해 때문에 힘들지만 그들의 얼굴은 활기로 가득차 있었다. 내내 우울했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우리가 보내준 건축자재와 생청국장 공장관련 시설들로 공사가 어느 정도 완성되었으리니 생각했는데 거의 진척이 없었다. “수해때문에 짓고 있던 건물이 일부 파손되고 전기와 물 사정이 좋지 않아 생각처럼 일이 진행되지 못했다”며 미안해했다. 우리가 왔으니 걱정 말라고 하면서 같이 일을 시작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종일 기계설치, 건물 복구 등에 몰두했다. 주먹밥을 나눠 먹고 눈길을 주고 받으면서 피곤한 줄도 모르고 작업을 하다 보니 3박4일이 금세 흘러갔다.

마지막 날 저녁 북측 민화협 간부들이 찾아왔다. 김치에 소춧잔을 기울이면서 2차 남북정상회담을 화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북



대수해가 휩쓴 평양 교외의 한 하천에서 주민들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통일부 제공)

경제인들 더 많은 방북 바라 10월 2차 정상회담 기대 커

북인사들의 의견은 간단했다.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끼리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문제에도 관심이 많았다. “남측 경제인들이 더 많이 북에 진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들으면서 지난 1차 정상회담 이후 북쪽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다. 그들은 2차 정상회담 이후 더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말치 않은 날에 서로가 편하고 자유롭게 왕래 할 것”이라는 희망도 내비쳤다.

평양을 떠나오던 날 바람은 다소 차가웠지만 마음은 온근했다. 오는 10월 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평양의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 사무총장)



참의원 참패·정치자금 추문 겹쳐 낙마

■ 아베 총리 전격 사의 왜

지난 7·29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이후에도 사퇴를 거부하며 당정개편을 통해 부활을 노렸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2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9월26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총리의 뒤를 이어 화려하게 일본 정치무대에 부상했다가 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하게 된 것이다.

주변의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총리직 유지를 고수하던 아베 총리가 이날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은 당정개편 이후 터져나온 신임 각료들의 정치자금 논란과 자신이 총리직을 걸고 관철을 약속했던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연장이 난관에 부딪치면서 더 이상 정권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그가 최근 테러대책법 연장과 관련, 민주당과의 절충을 위해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대표와의 당 대표회담을 제안했지만 일언지하에 거부당하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법의 연장이 불가능해진 것도 아베 총리의 사퇴를 앞당기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최근 8·27 개각 이후의 당 안팎의 상황도 아베 총리가 더 이상 총리와 자민당 총재라는 자리에 앉아 정국을 이끌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 것으로 보인다.

장담했던 테러대책법 연장 실패가 직접 원인

지지율 30%대 허우적... 1년 못돼 불명예 퇴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2일 전격 사임한 가운데 일본 도쿄시민들이 총리 사임 기사가 실린 호의를 집어들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기내각 출범 일주일만에 엔도 다케히코(渡邊武彦) 전 농수산상이 국고 부정수령 문제로 퇴진한데 이어 다른 각료들도 잇따라 정치자금 수지보고서 조작 논란에 휩싸이면서 당초 아베 총리가 밝힌 개혁이나 인적 쇄신이란 명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됐다.

잇따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총리 내각에 대한 지지도가 다소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30%대를 넘어서지 못한 것도 취임 1주년을 불과 2주일 남겨놓은 상태에서 불명예 퇴진이란 길을 택할 수밖에 없게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도쿄·연합뉴스)

“폭행에 개종 강요까지 노예같은 생활 했다”

■ 아프간 피랍자 기자회견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게 납치됐다 풀려난 피랍자들 중 일부는 수시로 폭행당하면서 개종을 강요받는 등 ‘노예 같은 억류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랍자 21명은 12일 안양생병원에서 열린 1차 기자회견 이후 북쪽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다. 그들은 2차 정상회담 이후 더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말치 않은 날에 서로가 편하고 자유롭게 왕래 할 것”이라는 희망도 내비쳤다.

◇“뺨도 잡았다”=피랍기간 내내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 유괴화서 그룹은 구덩이 앞에 서 기관총을 겨누는 상태에서 여러 번 비디오 촬영을 강요당했다. 그 때 총격으로 지금도 카메라를 바로 볼 수 없다.

제창희씨의 경우 해발 3천m 남부 산악지대에서 토굴생활을 했다. 납자들은 수시로 구타를 당하며 각종 노역을 시키는 등 노예같은 생활을 했다.

심지어 토굴에 들어온 독사를 나무로 잡아야 했으며 목에 총이 겨워진 상태에서 나뭇가지와 발로 때렸다. 여성들은 화장지가 없어 책 찢어 휴지로 사용했다. 송병우씨는 복면을 쓴 채 구타를 당하다 구덩이에 빠지면서 가슴 뼈를 다치기도 했다.

일부 여성들은 좁은 공간에서 탈레반과 함께 있었으며 10여일간 하루 1시간씩 자며 거의 먹지못하기도 했다. 생리적 고통도 있었지만 감금생활에 따른 심리적 고통이 컸다.

◇골 없는 이동=고세훈씨 그룹은 거의 매일 밤 거처를 옮기는 등 24차례 이동했으며 항상 탈레반 2명의 감시를 받았다. 다른 그룹들도 5~12차례 정도 이동하며 헛간이나 창고, 민가 등 다양한 곳에서 지냈다. 12차례 이동한 차해진씨의 경우 24시간 탈레반과 함께 방 안에서 지냈으며 막바지에는 2대의 오토바이에 2명씩 나눠 타고 이동했다. (연합뉴스)

미-러, ‘슈퍼폭탄’ 개발 경쟁

러, 美 ‘폭탄 어머니’ 보다 강한 ‘아버지’ 만들어

구소련 붕괴 이후 한동안 뜸했던 미국과 러시아간 무기개발 경쟁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이번엔 핵무기가 아니라서도 핵무기에 못잖은 파괴능력을 가진 ‘슈퍼폭탄’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군은 11일 미국이 지난 2003년 개발한 공중폭발대형폭탄(Massive Ordnance Air Blast, MOAB)으로 ‘모든 폭탄의 어머니(Mother Of All Bombs, MOAB)’라는 별명을 가

진 폭탄보다 더 강력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폭탄을 개발했다고 밝힌 것으로 AP통신이 보도했다.

AP통신은 러시아 국영방송인 채널 1TV를 인용, 이 폭탄은 미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재래식 폭탄인 ‘모든 폭탄의 어머니’보다 4배나 강력한 폭발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채널 1TV는 이 폭탄의 별명을 ‘모든 폭탄의 아버지(Father Of All Bombs)’라고 불렀다. (연합뉴스)

“美, 북핵 폐기전 평화조약 체결 안해”

빅터 차 前 NSC 보좌관 밝혀

빅터 차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12일 “미국은 한반도 평화조약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 폐기하기 전까지 관계정상화나 평화조

약을 체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타운대 교수인 차 전 보좌관은 이날 오전 조선평화에서 열린 안보경영연구원 주최 포럼에 참석, “미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

제5기 한자한문지도사 자격모집

1. 연수일정

- 개강일시 : 주중반 : 2007. 9. 14(금)
- : 주말반 : 2007. 9. 15(토)
- 모집기간 : 8. 17(금)~9. 15(토)
- 수업기간 : 2007.9.14~2008.2.23(6개월/24주)
- 수강료 : 320,000

모집인원: 1단계 주중/주말반 각20명(선착순)

수업시간

- (매주 금, 토)09:10~14:30(5강좌)

수료후 특전

- 1. 2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 수료증 수여(총장명명)
- 전국대학부설평생교육원협의회 자격증 취득기(회부예해당과목)
- 각 학문학원 강사 추천

각급학교 (특기적성교육 강사) 추천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TEL: (062)950-3584, 3585, HP: 011-614-4160

전액국비수강생모집

자격증 취득에서 취업(창업)까지!!

공인중개사과정 (개강: 9월3일)

- 과 정 : 주간반(10:00~13:50)
- : 야간반(19:00~22:30)
- 대 상 : 고용보험 기금 직장인 또는 일반인
- 내 용 : 최종 문제풀이(전진도별 진행)
- 교수진 : 한영호·박민수 교수팀(저지직강)
- 기 타 : 이론부족시 동영상 무료제공

주최관리사 최종문제풀이 주말반(토)입모집중 (개강 9월 8일)

정보기술(IT)과정 (개강: 매월초)

- 과 정 : 정보화기초1과정(화,목 19:00~21:00)
- : 정보화기초2과정(월,수,금 19:00~21:00)
- : 자격증(사무자동화)과정(월~금 수시)
- : 컴퓨터활용실무과정(월~금 19:00~21:00)
- 대 상 : 고용보험 기금 직장인 또는 일반인
- 기 타 : 훈련수료 후 개인별 현금(노동부)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현대 직업전문학교

동부경철서 옆 224-4560, 232-1088 http://www.hdedu.co.kr

세무공무원 1800여명 율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2회 추가 공채 예정 =

7, 9급 공무원 완전 대비

강화 집중

행정직, 교행직, 세무직, 관세직, 감사직,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보훈직, 소방직, 전산직, 복지직, 토목직, 건설직, 불리화

최선을 다 하지 않고 꿈을 이루려는 것은 허영에 불과하다!!

개강: **월 1일과 15일 주·야 (휴말)반 모집** (현재상당원수중) (후시접수가능)

= 46년 전통의 無等은, 강의第一! 합격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

www.mdgoal.co.kr 222-4560

10월 28일 공인중개사 합격

최종문제풀이 특강 6주 완성

"매일 핵심 40문항 모의시험 문제풀이를 통해 최종 합격 점점"

개강 9월 10일

광주고시학원 본원 227-8003 (무도성 앞 전일빌딩 위)

첨단점 971-0002 (빅마트 점점점 앞 광주은행 4F)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9월대개강 (1)개강 9월 1일 (2)개강 9월 3일

전문대출연(예정자), 4년제대학 2학년만 마치고 누구나 원하는대학, 원하는 학과 3학년으로 편입가능!!

개설과목: 영어, 수학, 상용, 화학, 유기화학, 물리, 한문, 한의약, TEPS

일반대 사범대 면접반 역대, 한의대 면접반

MEET/DEET 기출문제반 TEPS 최단기 고득점반

김영면임·PMS학원 (광주동부경철서) 227-8088